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셋째 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습 저마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셨으니 그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평화와 사랑으로 우리 영혼의 어둠과 미움을 녹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을 받드는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필요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우리를 나누고 갈라놓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편협한 마음을 넓혀주시고, 척박한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9:13
인도자	
♠ 교 독 문	9. 시편 23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김주영 선생 II. 이용한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417. 큰 죄에 빠진 나를
다함께	
성경봉독	I. 롬9:19-23
다함께	
	II. 눅10:29-37
인도자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용기
김기석 목사	
	II. 화해의 길
한인철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16. 맘 가난한 사람	다함께
헌금봉헌<찬양 : 유아부>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화해를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며 사십시오. 우리의 큰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탐욕과 이기심에 찌든 편협한 자아를 버리고 끝없는 진리의 넓은 마음 품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가장 크신 하나님을 모셨듯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이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소중히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강좌(26)	신명기 강해(6)
기도: 박창운 권사/한상익 권사(27)	기도 : 임창선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임보람 선생 김재흥 목사	인도자 이영란 집사

6월	영접위원	윤정덕	김중수	권혁순	곽혜자	박애순	이영란
	헌금위원	이용한	방문성	김인걸	김필순	송양진	박혜경

우리가 천국에 올려보낸 재료

어느 여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가 그를 맞이하며, ‘당신이 살 집으로 안내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데리고 가는 길 양면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집마다 정원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여인은 기대에 차서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길은 점점 황량해지고, 천사는 꽃 한 포기 없이 다 쓰러져가는 판자집 앞에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이곳이 부인이 살 집입니다.” 여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저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데 왜 나를 이런 곳에 살게 하는 거죠? 난 세상에 있을 때도 대저택에서 살았는데.“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부인, 뭔가 오해하셨군요. 이곳 천국에서는 당신이 지상에 살 때 올려 보낸 재료만을 갖고 집을 짓는답니다.”

우리가 나눠 갖기만 한다면 아직 지구상에는 모든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 쓸 수 있는 충분한 돈,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의약품이 있습니다. 한쪽은 너무 배가 부르고, 한쪽은 손을 떨며 배가 고파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이 그런 굶는 아이들 한 명씩만 책임진다면 세상의 고통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처는 자비’라고 하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 한 명이 가난한 나라의 어른 한 명씩만 책임진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낙원이 따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무려 3천만 명이 비만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동시에 3천3백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흑인, 제 3세계 국가에서 이민 온 사람들, 저소득 빈민층이 그들입니다.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균형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지출되는 애완동물 사료비만 합쳐도 전세계 가난한 나라들의 기본 의료비를 대고도 남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 모토롤라 회사의 한 해 수익은 아프리카 제2의 경제 규모를 지닌 나이지리아의 한 해 국민소득과 비슷합니다.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등 세계 최고 부자 세 명의 재산은 가장 가난한 나라 49개국에 사는 8억 명의 연간 소득보다 많습니다. 일본의 닌텐도사가 미국에 포켓몬 게임을 팔아 거둔 수입으로는 아프리카 르완다와 니제르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인도와 아랍의 부자들 역시 그 재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입 하나를 덜기 위해 독초를 먹여 갓난아기를 죽여야만 하는 엄마들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정치인과 지식인, 신문과 방송이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생색 내듯이 한번 ‘우리 신문과 방송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자정 넘은 시각에 그들의 참상을 보여줄 뿐입니다. 온갖 쓸데없는 방송과 기사들이 대중의 이목을 빼앗아가는 동안 한 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탤런트와 가수들이 벗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한쪽에서는 정말로 입을 옷이 없어 혈벗은 채 몸을 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우아하게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드는 순간, 스무 명의 사람이 배고픔을 잊기 위해 밤에 허기진 배 위에 돌을 얹어놓고 자야 합니다.

석유업자 몇 명의 배를 채우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미사일 쏘아 댈 때, 수백만 명의 난민이 생겨납니다. 양심 없고 비인간적인 정치 세력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아이들이 총알받이가 되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송과 신문들은 해외 단신으로만 내보내야 할까요? 무의미한 토크쇼와 말도 안 되는 오락거리로 황금 시간대를 채우고 사람들을 점점 저속하게 만들면서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에 내보내야만 할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극들은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여겨야만 할까요?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인간의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 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가슴 사이에 너무 큰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어 죽을 때까지 가슴으로 못 가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 종교의 차이, 능력의 차이, 피부색의 차이는 필요합니다. 지구는 다양성이 꽃 피어나는 곳이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나눠 가져야 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 사회에서는 먹을 것을 훔쳐가는 것은 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먹을 것이 없게 만든 그 사회가 잘못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최소한 굶어 죽지만은 않게 해야 합니다. 최소한 항생제 하나가 없어 눈이 멀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니깐요.

■ 마/음/으/로/읽/는/글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사람들의
총탄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 인도의 마더 테레사 본부 벽에 붙어 있는 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구명자 박재실 김준호 곽혜자 김정길 최숙화 이봉옥 최종원
배삼순 박옥순 이소순 박영희 정복순 고사일 최영선 김성경

월정헌금:

권미정 황원순 이용희 박준희 이기분 황자순

감사헌금:

이정은 문금석 배삼순 김성수 김흥기 김은정 박옥순 정미경 김성경

생일감사헌금:

김 크

구도헌금:

고재중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정두리	하재두
베들레헬	윤정덕	정경례	김윤수	박홍엽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정진경	이춘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박경선	김명순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박애순	진정숙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김춘려	김순복
시온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최희정
에베소	이순정	한선희	오복순	이순정
빌립보	최종원	이형숙	이형숙	최종원
가버나움	구성실	안홍숙	이봉옥	김진경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김시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혜권	안경숙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김성자	배삼순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조항미
두란노	안종일	정현주	교회	교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4여선교회 월례회가 예배후에 있습니다.
2. **계삭회:** 중구용산지방 2차 남선교회 계삭회가 24일(목) 오후6시에 일신교회에서 열립니다.
3. **멘토:** 멘토를 정한지 3달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돌보아야 할 이들을 살펴봅시다.
4. **신앙실천 :** 6.25 54주년입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으로 고통 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 1) 이산가족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 2)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 3) 이라크, 팔레스타인의 난민들을 위해
 - 4) 세계 곳곳의 전쟁과 약탈로 고통 당하는 이들을 위해

*헌화 - 윤석철 장로(생일감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